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106ha 규모 조사료 종자생산단지 조성

- 조사료 종자 국내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기반 마련
- 종자업 등록자격을 가진 전문성 있는 농업법인이 대규모 재배·보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수입 의존율이 87.7%에 달하는 조사료 종자의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에 조사료 종자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올해 신규 조성될 조사료 종자생산단지는 106ha(만m²)를 50ha 내외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성될 예정이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종자업체로 등록된 농업법인에게 최장 10년간 임대하여 청보리·귀리·트리티케일 등 조사료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보급할 수 있는 특화단지로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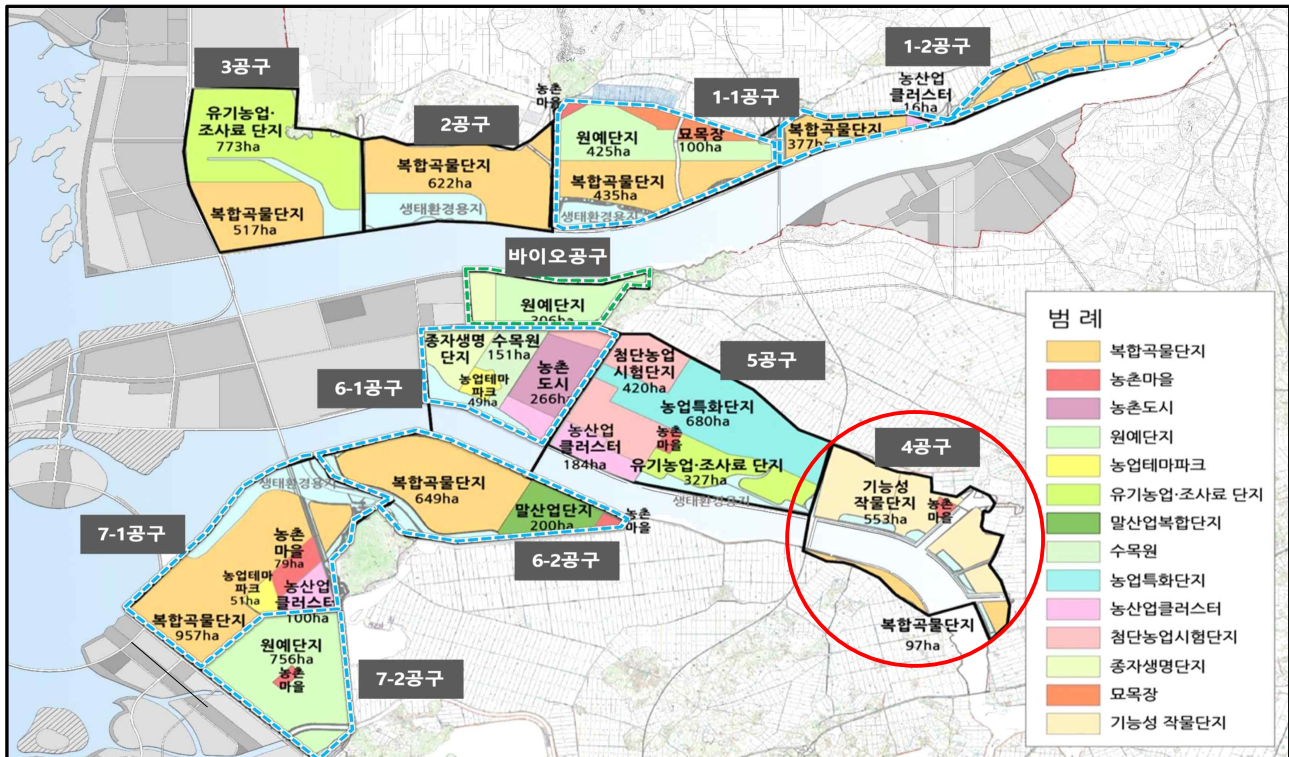
임대대상자가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추진 중인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전문가가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를 선발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추첨을 거쳐 2개 법인을 선정하며, 임대차계약을 거쳐 6월부터 영농을 개시할 수 있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식량안보와 미래 농생명산업의 중요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며, “식량안보 확립의 일환으로서 조사료 종자생산단지 조성사업이 국내 조사료 종자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 및 임대구역 위치도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실 농업기반과	책임자	과 장	이재천 (044-201-1851)
		담당자	사무관	지수근 (044-201-1852)
	축산정책관실 축산환경자원과	책임자	과 장	김재경 (044-201-2351)
		담당자	사무관	최수미 (044-201-2355)

□ 토지이용계획



□ 조사료종자생산단지 임대구역(4공구)

